

■ 중국 가스관 정상화 관련 진행 경과

▣ 가스전 사업구조 및 사고지점

⇒ 중국내 CNPC그룹 운영 가스관에서 산사태로 인해 폭발 사고 발생(미얀마 국경에서 약 900KM)

	Upstream (가스 생산)	Offshore Midstream (해상운송)	Onshore Midstream (육상운송)	중국 (육상운송)
사업범위	생산플랫폼 (Shwe) 해상 파이프라인 (플랫폼~가스터미널) 등		육상파이프라인 (가스터미널~ 미얀마/중국 국경)	육상파이프라인 (Ruili ~ Guigang)
모식도				
참여형태	컨소시엄		합작법인 (SEAGP)	CNPC그룹운영
참여회사	포스코대우 51%(운영권자) OVL, KOGAS 등 49%		CNPC 50.9%(대주주) 포스코대우 25.04% OVL 등 24.87%	CNPC 등 100%
전장	123km		793km	1,726km (지선 858km 별도)
	가스전 ↔ 미얀마/중국 국경 전장 : 약 900km			

사고 발생 프로젝트

▣ 중국 가스관 정상화 관련 진행 경과

√ 현재 CNPC그룹은 사고구간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귀주성 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승인 대기 중, 정상화 일정 확인시 재안내 예정

※ 수요가 CNUOC(CNPC의 자회사)도 동절기에 중국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조속 정상화를 희망

√ 단, 금번 사고를 계기로 중국내 가스관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 진행 중

√ 판매 지연에 따라 기간회계손익에는 매출 감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
가스판매계약에 따라 연간구매의무 물량에 미달하는 미구매 물량에 대해
CNUOC는 대금지급 의무가 있어 사고로 인한 당사 현금흐름 측면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임

→ 중국 가스관 사고는 당사의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 가치 측면에는 영향 無

☞ 당사는 미얀마정부/ 파트너와 공조하여 CNPC 수시 접촉 및 정상화 독려 中